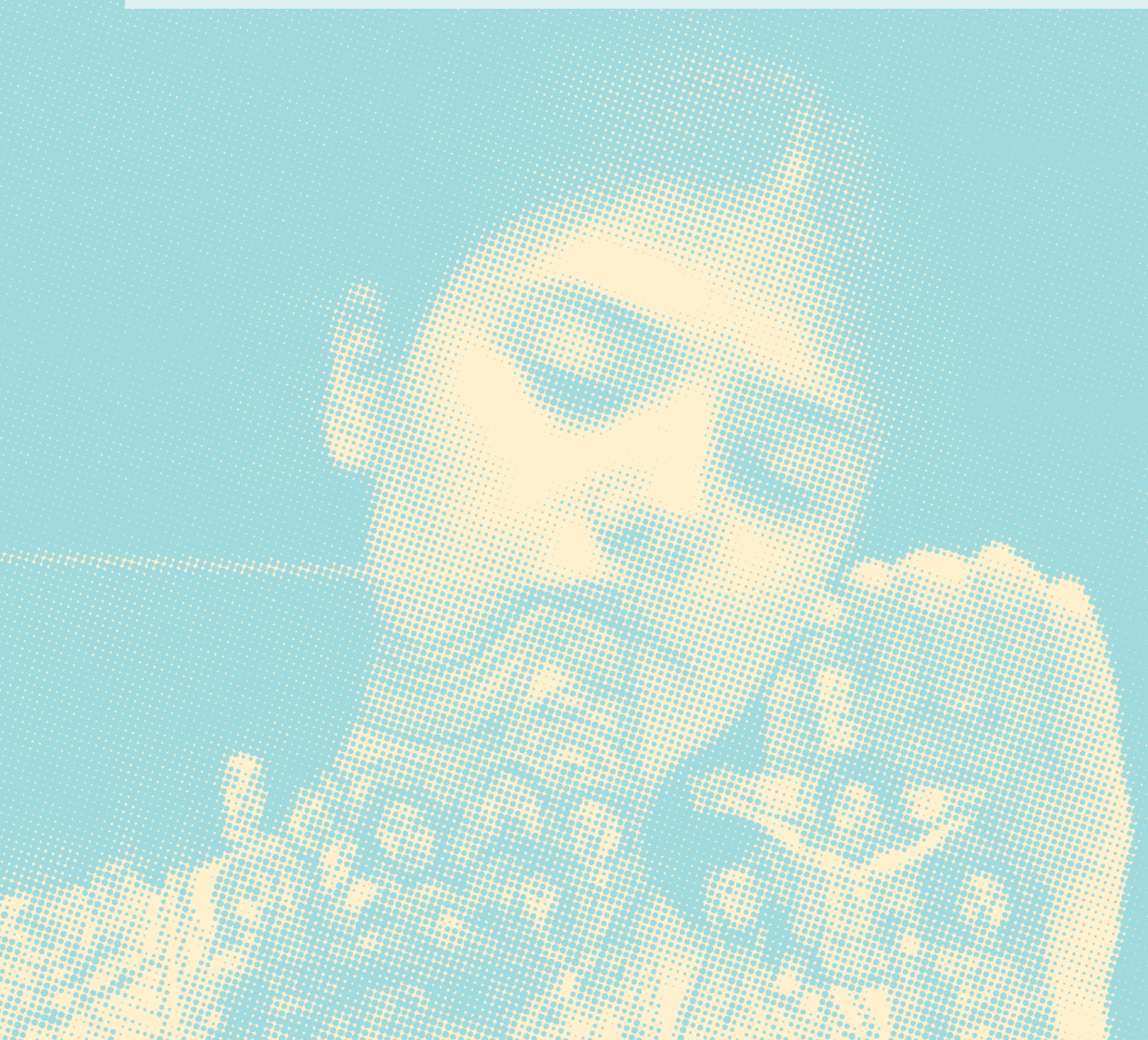


프로젝트 보고서 : 루마니아 시비우 아스트라 박물관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Project Report: the National 'Human Living Treasures'  
Programme of the Astra Museum, Sibiu, Romania

코넬리우 로안 부커(Corneliu Ioan Bucur)

루마니아 아스트라 국립박물관(Astra National Museum Complex), 관장



# 프로젝트 보고서 : 루마니아 시비우 아스트라박물관의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 ● 코넬리우 로안 부커(Corneliu Ioan Bucur)

루마니아 아스트라 국립박물관(Astra National Museum Complex), 관장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남단에 위치한 시비우는 2007년 문화의 수도로 선정된 EU의 두 도시 중 하나이다(영예를 차지한 다른 한 곳은 룩셈부르크이다). 19세기에 이곳 시비우에 설립된 '아스트라' 국립 박물관은 남동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이다. 연면적 96헥타르에 이르는 아스트라 전통 민속 문명 박물관(Astra Museum of Traditional Folk Civilization)은 유럽 최대의 야외 박물관(스칸센)이며, 이외에도 트란실바니아 문명 박물관(Museum of Transylvanian Civilization), 프란츠 빈더 민속학 박물관(Franz Binder Museum of Universal Ethnography), 에밀 시제루스 색스 민속학 및 민속예술 박물관(Emil Sigerus Museum of Saxon Ethnography and FolkArt), 집시 문화 및 문명기획 박물관(Projected Museum of the Culture and Civilization of the Roman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원 부서로는 코르넬 이리미에 메모리얼 캐비닛(Cornel Irimie Memorial Cabinet), 보존 및 복원(Conservation & Restoration), 아스트라 필름 스튜디오(Astra Film Studio), 마케팅 및 PR(Marketing and Public Relation Office), 아스트라 출판사(Astra Publishing House) 등이 있다.

2세기인 현재 아스트라 박물관 단지는 전통적인 민속학 박물관들이 가진 사물에 대한 페티시즘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문명의 역사박물관으로 변모하였다. 이를 통해, 루마니아 아카데미(Romanian Academy)의 후원을 받아 루마니아의 민속 문화사에 대한 현대의 이분(異分野)적 연구를 위한 국립 학술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새로운 박물관학의 개념을 여는 선봉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스트라 박물관의 이러한 모든 활동은 전통 민속 문화의 정수가 보존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living museum)' 정책 및 현대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시작으로 아스트라 박물관은 1962년에 루마니아 아카데미의 승인 하에 민속 기법(folk technique)에 관한 야외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정책은 수년에 걸쳐, 특히 1980년에 현재의 목표 및 우선순위 과제가 채택된 이래로 더욱 발전했다. 이러한 목표와 우선순위는 루마니아의 유형 및 무형유산을 이해 및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연구 및 안정화, 강화, 활성화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적 시스템에 기반을 두어 왔다.

이 박물관 단지 내의 아스트라 박물관과 다른 박물관들은, 문화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민속 기법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기술적이며 창의적인 재능과 기술 등 루마니아인들의 유형 문화유산을 반영하고 예시하는 여러 유형의 도구 및 장비, 집과 작업장, 그리고 보다 넓게는 공예품 등 인상적인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 단지는 또한 전통 민속 공예의 복원 및 지원, 민속 의상, 그리고 루마니아의 민속 문학, 춤, 음악, 음식 등뿐만 아니라 한 해의 특정 기간에 치르는 전통 축제 및 연회,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 일상, 노동 등과 관련한 풍습 등의 복원 및 지원을 위한 국립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야심 찬 연구 및 수집 프로그램과 더불어 박물관 측은 진정한 형태의 문화 전통과 오랜 기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완전히 방치 및 훼손되거나 억눌렸던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후손들이 자각하게 하고, 이들에게 이를 전승 및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 EU 내에서 이 박물관은 유럽 내 비교 경향(comparative trends)으로 기울고 있다. 이 박물관 단지에는 또한 인류학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보관하는 국립 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곳의 영화들은 전통 문화와 문명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스트라 필름 스튜디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제 인류학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 단지에는 또한 모든 박물관과 소장품 유형 별 복원가 및 보존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립 센터도 있다.

아스트라 전통 민속 박물관은 풍부한 전시물과 유산 덕분에 '민속 문화의 판테온'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민족의식 안에서 루마니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끄는 것이 가능하다. 아스트라 박물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는 국립 학교를 최초로 설립하고 루마니아의 역사와 문화의 유럽적,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해왔다.

아스트라 국립 박물관장인 코르넬리우 부커 교수(Prof. Dr. Corneliu Bucur)는 1989년 11월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전통 민속 문화의 구조(rescuing)에 대한 초기 유네스코 권고안이 개발된 1989년 2월에, 베니



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이 정책은 다시 1993년에 열린 제 142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문화재' 프로그램과 관련한 결정 내용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인간문화재' 제도의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0-91년 이후 아스트라 박물관은 전통 및 현대적 루마니아 문화와 민속 예술, 그리고 오늘날 루마니아에 사는 다른 민족 집단의 우수한 무형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잘 정비된 공식 시스템을 채택했다. 2000년에 유네스코는 1989년 권고안이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에서 어떤 식으로 채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다룬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과 태국, 필리핀, 대한민국 등 네 개의 아시아 국가에서 개발한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성과가 조명을 받았으며,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루마니아 등 단지 두 나라의 성과만이 조명을 받았다.

루마니아 내의 여러 민족학 및 민속 예술 박물관의 협력 하에, 아스트라 박물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한 루마니아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 색다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특정 무형 문화유형 별로 소수의 국가 '인간문화재'만을 선정하며, 보통 각각의 전통 예술, 공예, 또는 공연마다 한 명의 '인간문화재'만을 두고 있는 반면, 루마니아의 시스템은 유네스코 정책에 따라 국가로부터 특별히 지명되고 재정 지원을 받는 아들이 아니라 루마니아 무형 문화의 모든 중요한 수행자를 인간문화재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수행자들이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아스트라 박물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루마니아의 인간문화재에 대해 초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지원 중 하나는 1992년의 루마니아 민속 장인 협회(Romanian Folk Artisans' Association)의 설립이었다. 이 단체는 모든 민속 공예를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원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다. 또한 매년 성모승천일(the Virgin Mary, 8월 15일) 전후로 아스트라 박물관이 개최하는 루마니아 민속 장인 박람회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민속 장인 협회 회원과 다른 장인 예술가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23번의 행사가 열렸다.

2006년에는 전국의 유명한 장인 단체로부터 250명의 민속 장인들이 이 행사에 초대되어 다양한 민속과 공예 장르를 선보였다. 이 행사에서 자수, 직조, 도예, 채색된 부활절 달걀, 나무와 뼈 조각, 그림이 있는 목재와 유리, 털 제작, 가죽 및 모피, 인형 및 장난감 제작, 악기 제작, 가구, 채소 섬유 뜨개질, 모자, 장식품, 장신구 제작 등을 포함한 루마니아의 다양한 민속 공예가 소개되었다. 또한 진품들을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고품격의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측은 민속 박물관과 도심 두 곳에 민속 예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아래 참고).

박물관은 또한 여섯 개의 학과(민속 문학, 민속 음악, 민속 춤, 민속 공예, 민속 연구 기술, 루마니아 전통 요리)로 나뉜 54년 전통의 루마니아 전통 민속예술 아카데미(Traditional Folk Art Academy of Romani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새로운 회원들이 꾸준히 지명되고 선출되는 살아있는 조직이다. 엄격한 선출 제도에 따라 신입 회원을 선출해온

이 단체는 현재 전국의 유명한 장인들을 대부분 포함하여 220명 이상의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카데미 내 다른 회원 등 민족학 전문가들에 의해 선출된다. 또한 이 단체는 '최고의 민속 장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포럼'도 마련한다. 이 포럼에서 회원들은 민속 문화의 과거(전통),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석적이고 민주적인 대화를 나눈다.

1992년부터 아스트라 박물관은 네 번의 루마니아 아동 민속 장인 대회(Romanian Children Folk Artisans' Competition)를 개최했다. 1996년에 교육부에서는 이 대회를 '전국 전통 민속 공예 올림피아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정하여 교과 외 교육활동에 포함시켰다. 6-18세 사이의 어린이는 자신이 학교나 집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민속 공예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올림피아드는 참여한 어린이들이 우수한 기성 장인들을 소개 받고 그들의 비결과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독특한 행사이다.

2006년에는 시비우 시의회, 루마니아 교육부, 시비우 교육감 등의 협력 하에, 제11회 행사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아스트라 박물관의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은 또한 전통 민속 공예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마니아 전국의 각 지역 예선을 거친 영재들 중 두 명의 우승자를 최종 선별하여 루마니아의 민속 올림픽 챔피언 타이틀을 부여한다. 2006년에는 35개 지역 및 부카레스트 시(Bucharest City)가 참가한 가운데 140명의 지역 예선 통과자들이 지도자 및 교사의 동반 하에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2007년도 (12회) 올림피아드의 결선은 8월 23일부터 8일 간 아스트라 야외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민족 의상을 입고 장인 및 민속 예술가들의 지도 아래 전통 예술과 공예품을 만들게 된다.

박물관은 또한 2001년부터 새로운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이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매년 열리는 스미소니언 민속 축제(루마니아는 1999년에 참가)를 모델로 삼아 만든 전국 민속 전통 축제(National Festival of Folk Traditions)이다. 이 축제는 박물관이 개최하는 문화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평가되며, 1993년에 시작된 인류학 및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중앙 및 동유럽에서 최고의 행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 민속 전통 축제는 야외의 대형 무대에서 루마니아 전역의 다양한 민속 문화 공연 장르를 반영하는 공연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일상 또는 정신적(종교적) 세계를 보여주는 양방향의 라이브 공연 행사이며, 또한 예술가와 장인, 축제 방문객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행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금세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이야기를 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게 된다. 민속 예술가들은 각자 출신 지역의 전통을 선보이며, 야외 박물관에서는 라이브 공연과 여러 활동을 선보인다. 또한 각각의 페스티벌마다 트란실바니아, 문테니아, 몰다비아, 그리고 현재 몰다비아 공화국(전 소비에트 연방)에 있는 루마니아계 지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루마니아 지역의 공연자와 장인들이 초대되어 다양한 역사-지리적,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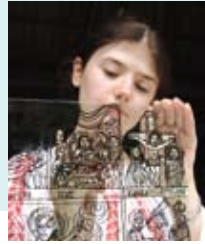


그림 1, 2  
2003년 루마니아 민속 장인 박람회

그림 3  
전국 민속 전통 축제



그림 4, 5  
전국 어린이 전통 민속 공예 올림피아드



며, 2006년에는 세르비아와 헝가리에 사는 루마니아계 참가자들이 초대되기도 했다.

이 축제에는 민족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전통 민속 의상을 차려 입은 450명 이상의 참가자가 함께 한다. 이 행사는 종교 예술, 민속 문학, 음악 예술, 안무 예술, 민속 공예, 민속 기법 및 전통 민속 음식 등 일곱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6일 동안 매일 7-8시간에 이르는 활동과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1) 루마니아의 현재 민속 문화를 보존하고, (2) 물리적 유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농촌의 문화유산 역시 포함한 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3) 젊은 세대들이 국가 민족 정체성의 표현으로서 민족 유산의 가치를 인식 및 보호하고, 이에 익숙해지며, 이를 전승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006년 가을, 이 박물관 단지는 아스트라 야외 박물관 입구에 있는 갤러리를 보완하기 위해 민속 예술 갤러리의 위치로서, 보다 적합한 시비우의 역사적인 도심에 하우스 오브 아트(House of Arts)를 개장하였다. 새로운 도심의 민속 예술 갤러리는 하우스 오브 아트 1층에 여섯 개의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곳에서는 현대 민속 예술가들이 만든 주요 전통 공예품들을 판매용으로 전시하고 있다. 때때로 일반 대중을 위해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시연하는데, 이는 장인들의 기술을 보여주는 한편 이들이 어떻게 민속 예술 전통을 보존하는 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기념품 코너에서는 판매용 상품들이 전시실에서처럼 유형별로 진열되어 있으며 장인과 대중을 직접 연결해주는 현대의 전통 공예 상품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어,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06년 10월 제 8회 국제 인류학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열렸다. 이 영화제는 이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중앙 및 동유럽 내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아스트라 박물관은 매년 참가자들을 보관하며 현재 전통 문화 및 문명을 특히 강조한 다양한 영화들을 소장하고 있다.

아스트라국립박물관이 개발하고 시행 중인 루마니아의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은 현재 전통 장인, 공연자, 그리고 기타 무형유산 계승자 및 전승자 등의 작업을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일련의 주요 연례 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루마니아는 이 분야에서 선두적인 국가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루마니아의 정책과 시행 역시 민족 및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글로벌화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책과 프로그램은 두 가지 변화로 인해 더욱 중요해졌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루마니아가 2006년 1월 20일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새로운 협약을 비준했으며, 2006년 4월 20일에 이 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것이었다. [2006년 6월, 협약에 따라 개설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에서 협약 시행에 대한 안내를 위해 루마니아가 선출되었다.]

두 번째 변화로는 이미 언급했듯이 2007년 EU의 유럽 공동 문화의 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로 시비우가 선정된 것을 들 수 있다. 모든 관련 단체들이 루마니아가 2007년 1월 1일에 가입한 (새로이 확대된) EU라는 상황과 새로운 밀레니엄에 맞추어, 시비우 지역과 루마니아 전반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 도시의 주요 주제는 바로 문화 간 대화이다. 이 대화는 넓게는 호스트 집단과 게스트 집단 간의 대화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루마니아인과 루마니아에 사는 소수집단 사이의 대화, 또한 토착 인구와 타민족 간의 대화이며, 타인종과 타종파, 타직업 간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 도시의 목표는 바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칭찬하며, 상호 존중과 존경을 쌓고, 집단 간 관계와 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발전에 있어서, 아스트라박물관, 그리고 루마니아의 수많은 인간문화재를 지원하는 아스트라 박물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7  
루마니아 전통 민속 예술 아카데미